

##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 (제1편)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sup>1)</sup>

#### -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허 덕\*, 박지원\*\*, 김태런\*\*\*

## 1. 머리말

브라질은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모두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대두 국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도 대두는 주요한 수출품이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브라질은 대두 수출량 측면에서 2012/13년도<sup>2)</sup>에 이전까지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 측면에서도 2017/18년도에는 미국에 비견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196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에서 대두가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았다<sup>3)</sup>. 2018년 시점을 기준으로, 브라질 수출액에서 대두는 전체 수출품 중 선두를 차지하는 주요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수출액 측면에서 커피, 설탕과 같은 전통적 상품은 물론이고, 철광석, 식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품마저도 상회하고 있다. 이제 대두는 브라질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품이 된 것이다.

브라질 대두산업에는 비료나 농약 등과 같은 투입재 부문인 상류부터 대두를 국내 외의 시장에 판매하는 하류까지 일련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구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2010)<sup>4)</sup>에서 지적하듯이, 소위 ‘ABCD’ 라고 불리는 ADM, Bunge, Cargill, LouisDreyfus로 대표되는 곡물 메이저가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대두 생산자로부터 대두를 집하하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착유·정제업자에게 판매하는 집하업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

1) 이 글은 林瑞穂, ‘브라질大豆産業の構造變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ポート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브라질 농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브라질 대두 및 옥수수산업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박지원,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세계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0월호(8월 5호)를 참조하길 바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국제곡물관측 담당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USDA/ERS)의 대두 작물년도에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기간이며, 이하 이 글에서 ‘연도’는 모두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의 기간이다.

3) Warnken, P. F. (1999)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Soybean Industry in Brazil, Iowa State University Press.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accessed on August 3, 2018).

4) 三菱総合研究所 (2010) 「農林水産省委託平成21年度地球的規模の問題に対する食料農業・農村分野の貢献手法に関する検討調査援助実施方針-ブラジル連邦共和国」, [https://www.mri.co.jp/NEWS/press/2010/\\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https://www.mri.co.jp/NEWS/press/2010/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2018년 11월 9일 참조).

당하고 있다. 특히 곡물 메이저는 대두 집하업에 참가함과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투입재나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대두 생산자를 포섭해 온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일본계 종합상사(이하 ‘일본계상사’)도 대두를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에 진출하였다. 브라질 항구에서 곡물 메이저에게 곡물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집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루트도 강화하고 있다<sup>5)</sup>.

최근에는 일본계 상사가 브라질에서 대두를 중심으로 한 곡물 사업이 흑자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 일례로, 2018년 5월에는 미츠이물산(三井物産)이 브라질의 곡물 집하사업에서 철수하기로 발표기도 하였다<sup>6)</sup>.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다른 곡물 메이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Bunge의 CEO인 Soren Schroder는 남미에서 곡물·유량 종자 생산 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자 매도세 등에 의해, 이 회사의 실적은 과거와 같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sup>7)</sup>.

세계적으로 또한 브라질 경제에서 브라질 대두산업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브라질 대두산업 전체로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계 상사나 일부 곡물 메이저는 브라질에서 대두사업 수익성 저하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었던 브라질 대두 서플라이 체인, 특히 대두 생산자를 둘러싼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던 대두 집하업 부문에서 사업을 둘러싼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곡물 메이저 등과 같은 기업의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두 집하업에 주목하여, 브라질 대두산업의 최근 구조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둘러싼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방법의 틀을 토대로 고찰하여 본다. 그리고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에서는 2010년대 경부터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 등에 수반된 신규 참가의 증가,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나 구매자인 착유·정제업의 교섭력 향상 등 변화의 진행을 살펴본다. 업계를 둘러싼 경쟁 구조 변화 등이 발생하여 대두 집하업자의 수익성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5) 三菱総合研究所 (2010) 「農林水産省委託平成21年度地球的規模の問題に対する食料・農業・農村分野の貢献手法に関する検討調査援助実施方針-ブラジル連邦共和国」, [https://www.mri.co.jp/NEWS/press/2010/\\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https://www.mri.co.jp/NEWS/press/2010/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2018년 11월 9일 참조).

6) 三井物産 (2018) 「中期経営計画の進捗及び2019年3月期事業計画」(2018년 5월 30일), ([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8/05/30/ja\\_183\\_4q\\_ppt\\_re.pdf](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8/05/30/ja_183_4q_ppt_re.pdf))(2019년 5월 28일 참조). 그 후 2019년 4월에 브라질 곡물 집하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발표하였다.(三井物産 (2019) 「中期経営計画の進捗及び2020年3月期事業計画」(2019년 4월 26일 참조), [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9/05/08/ja\\_193\\_4q\\_ppt.pdf](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9/05/08/ja_193_4q_ppt.pdf)(2019년 5월 28일 참조).

7) Financial Times (2017) Tough times for big grain traders, Financial Times, 08. 10. 2017. <https://www.ft.com/content/1266eefa-7c10-11e7-9108edda0bc928>(accessed on August 1, 2018).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는 브라질 대두산업의 최근 발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절에서는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둘러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세계 대두 수급동향을 정리하고, 대두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의 위상 변화를 확인한다. 제5절에서는 브라질 국내에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상사 등의 주요 대두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전개과정에 따라 정리한다. 그리고 제6절에서는 제3절의 분석 틀과 제4절 및 제5절에서 파악된 기간 구분에 근거하여,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구조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 2. 선행연구<sup>8)</sup>

브라질 대두산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최근의 발전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서는 이하의 6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이들 선행 연구의 개요를 정리하고 선행 연구에 어떠한 점을 새로운 의견으로 더할지에 대해 언급한다.

치노(茅野, 2006)<sup>9)</sup>는 대두를 포함한 곡물의 세계시장과 미국의 곡물 메이저의 역사적인 전개를 논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대두산업 발전 경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치노(茅野)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급격한 곡물 수요 확대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 메이저들의 사업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 금수 조치 발동과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사이에 수출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곡물들로 인해 수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곡물 수출이 부진해지게 되고, 곡물 메이저 사업들은 설비 과잉과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곡물 메이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업자 매수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곡물 집하업 이외에 착유 등과 같은 분야에도 투자를 실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 곡물 메이저들이 아시아 각국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미국의 곡물과 대두 집하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공급지로서 브라질을 필두로 한 남미에 집하망 구축과 착유회사 인수를 통해 곡물, 대두와 그것들을 원료로 하는 사료 공급체제 확립을 도모하였다.

다음으로는 Wesz Junior(2011)<sup>10)</sup>의 연구가 있다. 그는 브라질 대두산업에서 공급망 전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주요 대두 가공품인 대두유와 대두박은 균질화되어

8) 여기에서의 선행연구는 모두 원문 저자인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 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ポート를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9) 茅野信行(2006) 『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中央大学出版部.

10) Wesz Junior, V. J. (2011) Dinâmicas e estratégias das agroindústrias de soja no Brasil, Sociedade e Economia do Agronegócio.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Mapa-Bioma Cerrado, [https://www.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https://www.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 (2018년 2월 19일 참조).

다양성이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대두산업에 있어서 소비자보다 상품 공급자인 착유·정제업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1990년대부터 ABCD로 대표되는 곡물 메이저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브라질 대두착유·정제업은 브라질 자본기업이 이들 메이저 기업에 매수되었으며, 이때부터 다국적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Oliveira and Schneider(2015)<sup>11)</sup>는 세계 대두산업의 최근 현저한 움직임으로서 1) 대두의 생산량, 가공량 및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점, 2) 대두의 용도가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바이오 연료용으로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3)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가 유럽시장으로 수출되던 북대서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대에서 남미와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시장을 통제할 때 대규모로 옮겨갔다는 점 등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새로운 지역의 사례로 중국과 브라질을 들며, 대두산업을 둘러싼 세계적인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브라질 대두산업에 대해서는 1960년대, 70년대에는 밀이나 옥수수의 윤작·녹비로서 대두생산이 개시되었고, 그 후에는 국내 식물유나 가축 사료 시장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대두와 대두유, 대두박 생산의 일대 거점으로서 투자가 촉진되었다고 한다.

Bernardes et al. (2016)<sup>12)</sup>에는 브라질의 주요 대두 생산지인 중서부에 위치한 마토그루토 주를 대상으로, '공간(空間)'을 키워드로 하여 농업 섹터의 경제적 변용을 고찰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 Velozo da Costa(2016)<sup>13)</sup>는 마토그루토 주에서 1970년대부터 미개발된 '공백공간(空白空間)'에 대한 입식 및 농업용지로서의 개척이 본격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주의 주도(州都)인 쿠이아바 시와 북부 지역에 있는 산타렌 항구까지를 연결하는 국도 163호선의 개발을 계기로 대두와 옥수수 재배로 대표되는 근대적 농업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2000년경부터는 대두와 옥수수를 사료로 이용하는 식육산업이 마토그루토 주 진출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Azevedo de Britto et al.(2016)<sup>14)</sup>은 국도 163호선 주변의 개발이 가져다주는 아마존 열대림과 같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그리고 Bernardese Silva(2016)<sup>15)</sup>는 국

11)Oliveira, G. L. T. and Schneider, M. (2015) The Politics of Flexing Soybeans: China, Brazil and Global Agroindustrial Restructuring,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3(1) : 2016.

12)Bernardes, J.A., Buhler, È. A. e Velozo da Costa, M.V. (2016)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Lamparia editora.

13)Velozo da Costa, M.V. (2016) O processo de construção da nova fronteira do capital na BR163 mato-grossense,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Bernardes, J.A. eds.

14)Azevedo de Britto, F.G., Sodrè da Silva, S. S., e Anache, B.M. (2016) Técnica, território e impactos ambientais no “celeiro” das commodities agrícolas, Bernardes, J.A.(eds.),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15)Bernardes, J.A. e Silva, E.J.M. (2016) Estratégias das empresas comerciais exportadoras da cadeia de grãos na fronteira da BR-163 matogrossense, Bernardes, J.A.(eds.),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Bunge, A Bunge : Nossa História, [http://www.bunge.com.br/Bunge/Nossa\\_Historia.aspx](http://www.bunge.com.br/Bunge/Nossa_Historia.aspx)(2018년 6월 20일 참조).

도 163호선 주변 대두사업의 곡물 메이저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사업 전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Piresda Silva et al.(2017)<sup>16)</sup>은 다국적 기업론의 관점에서 브라질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분석하였다. Piresda Silva et al.은 기업의 다국적화 요인에 관한 Dunning의 ‘국제 생산의 절충 패러다임<sup>17)</sup>’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인 곡물 메이저가 ‘소유’, ‘내부화’, ‘입지’ 중 어느 우위성을 고려하여 브라질에 대두 공급 체인을 구축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소유’에 관해서는 다국적기업인 곡물 메이저가 풍부한 자금이나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우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창고나 가공업자 등을 매수,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생산자를 둘러쌈으로써 브라질 대두산업을 스스로가 구축하는 글로벌·서플라이 체인 안에 집어넣고, 브라질 국내에서도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부화’에 대해서는 물류망의 미정비 등과 같이 브라질 코스트<sup>18)</sup>로 불리는 자국 고유의 불확실성을 내부화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 비용을 회피 혹은 삭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입지’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광대한 농지, 대두 생산에 적합한 기후,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두산지로서 세계적으로 우위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iresda Silva et al.은 곡물 메이저가 이상의 3가지 점에서 우위성을 고려하여 브라질의 대두산업에의 참가를 결정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Turzi(2017)<sup>19)</sup>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파라과이 3개국을 사례로 들면서, 이들 3개국이 곡물 메이저 등 다국적 기업이 구축하는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 내에 편입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16)Pires da Silva, R. T., Beheregarai, A., Vieira, L.M. and Teixeira, R. (2017)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Operations Strategies Decision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Soybean Chain. São Carlos, Gestão & Produção 24(4) pp.763-776.

17)竹中(2013)에 따르면 Dunning은 다국적 기업론에서 기술된 ‘기업 자신에 대한 우위성’과 ‘시장의 내부화’ 외에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입지조건’을 더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절충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Dunning(Dunning, J. H. (1988)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Unwin Hyman.)은 (a) 타국의 기업에서 재산권·무형자산이나 통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위성이 있을 것(소유=Ownership), (b) 소유의 우위성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이득이 있고, 사업 확장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의 내부화 우위성이 있을 것(내부화=Internalization), © 본국 밖에 있는 천연자원을 포함한 투입재를 (a), (b)의 우위성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지=Location)이라는 3가지가 충족되었을 경우, 기업은 해외 진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이론은 3개 항목의 첫 글자를 따서 ‘OLI 이론’으로 불린다. 덧붙여 Dunning는 ‘절충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OLI 패러다임’으로 변경하고 있다(竹中厚雄 (2013) 「多国籍企業における企業の境界の理論的視角」『彦根論叢』2013 Winter, No.398. 및 高橋意智郎 (2018) 「多国籍企業の海外直接投資の決定要因に関する理論の検討」『実践女子大学人間社会学部紀要』第14集).

18)브라질 코스트로서 대표적인 것은, 복잡한 세제에 의한 세무 코스트, 경직적인 노동법제에 지켜진 피고용자에 대한 노무 코스트, 고금리에 의한 금융 코스트, 물류의 미정비에 의한 인프라 코스트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19)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Palgrave Macmillan.

남미 각국의 농업 부문에 있어서, 1970년대 무렵까지 수입 대체 공업화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 촉진과 인플레이 관리를 위한 농산물 가격 억제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간섭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채무위기와 구조조정을 계기로 정부는 그 역할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외자 기업의 참가가 촉진되었다고 말한다<sup>20)</sup>.

Turzi는 이들 3개 국가의 대두산업에 있어 종자나 농약 등의 투입 재화의 공급, 대두 생산, 집하, 가공, 유통, 무역, 최종 사용자를 위한 판매와 같은 서플라이 체인 각 단계가 곡물 메이저에 따라 컨트롤되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브라질의 대두 가공기업 톱 10은, Ceval, Sadia, Sanbra(후의 Santista Alimentos S.A), Cargill, Incobrasa, Unilever, Bianchini, Olvepar, Coimbra 그리고 Coamo이다. 그 중에서 분명히 곡물 메이저 등의 다국적 기업 계열은 Cargill이나 Unilever뿐 이었다<sup>21)</sup>. 하지만 그 후 1997년까지 Bunge가 Santista Alimentos S.A., Incobrasa, Ceval을 회사그룹 산하로 흡수하였으며, ADM이 Sadia를 매수하여 브라질 시장에 참가하는 등 곡물 메이저에 의한 기업 집약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브라질의 대두산업이기는 하지만, 브라질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세계의 대두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급원으로 주목받았고, 1990년대 무렵부터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세계 대두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곡물 메이저는 자금이나 정보 면에서 우위성을 배경으로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의 내부화 등을 통해 경영비용 삭감을 도모하면서, 집하 및 착유·정제 사업을 핵심으로 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브라질 국내에 구축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에 의해 주로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이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였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행 연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브라질의 대두산업에 있어서 곡물 메이저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이지만, 최근 곡물 메이저나 일본계 상사가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수익성 저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며, 해당 사업을 둘러싼 산업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에서는 곡물 메이저 외 일본계 상사의 동향도 함께 고려하면서, 브라질 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업계 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브라질 대두산업 연구에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20)Mueller는 그의 논문 Mueller, B. and Mueller, C. (201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razilian model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ions versus sectoral policy.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62, pp.12-20을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의 농업생산 확대는 특정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간섭을 감소시켰다는 점과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생긴 제도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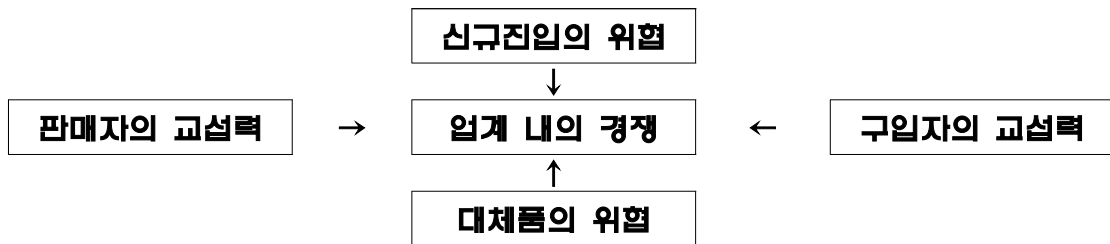
21)Turzi(2017, p78)는 브라질의 대두 가공기업의 톱10 기업의 회사명을 나타낼 뿐 그 자본구성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다국적 기업명을 딴 Cargill 및 Unilever 이외에는 민족계 자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분석의 틀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두산업의 업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학자 마이클 E. 포터<sup>22)</sup>가 제창한 다른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의 골조를 이용하여, 해당 업계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의 틀을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자료: グロービス・マネジメント・インSTITUTE編 (2005)『MBA経営戦略』ダイヤモンド社, 로부터 원저자 작성.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 —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ポート에서 재인용

우선, 중심에 있는 ‘업계 내의 경쟁’은 대상으로 하는 업계의 기존 세력끼리의 경합 상태를 나타내며, 가장 직접적으로 업계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 상부에 위치하는 ‘신규 진입의 위협’은 신규 진입에 의해 경합 상황이 격화되며, 그 밖에 경쟁 규칙 변화 등이 초래되고, 그 결과로서 수익상황에 변화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규 진입 발생을 좌우하는 ‘진입 장벽’에 대해 검증한다.

업계 내의 경쟁을 좌우로 하는 ‘판매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중심의 ‘업계’에 속해 있는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 등의 공급자인 매도, 구매자로부터의 조달과 고객인 구매자에게 상품 판매를 통해서 상응하는 수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견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매자나 구매자의 교섭력의 강도에 대해 고려한다.

하부에 위치한 ‘대체품의 위협’은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의 출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 업계가 취급하는 기존 상품을 대신하는 것의 유무가 업계의 수익성 및 그 시장의 계속성을 좌우한다. 덧붙여 각 화살표는 중심에 위치하는 업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이 분석 틀에 대해서 글로비스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편저(2005)<sup>23)</sup>에서는 업계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동업자만으로 구성되는 협의의 업계뿐만 아니라, 그 거래 상대 등을 포함한 업계 외에서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야기(八木, 2013<sup>24)</sup>)는 이 분석 틀을 외부환경을 반영한 기업의 경영행동과 그

22) 포터, 마이클 E(2001)『競争戰略論 I』ダイヤモンド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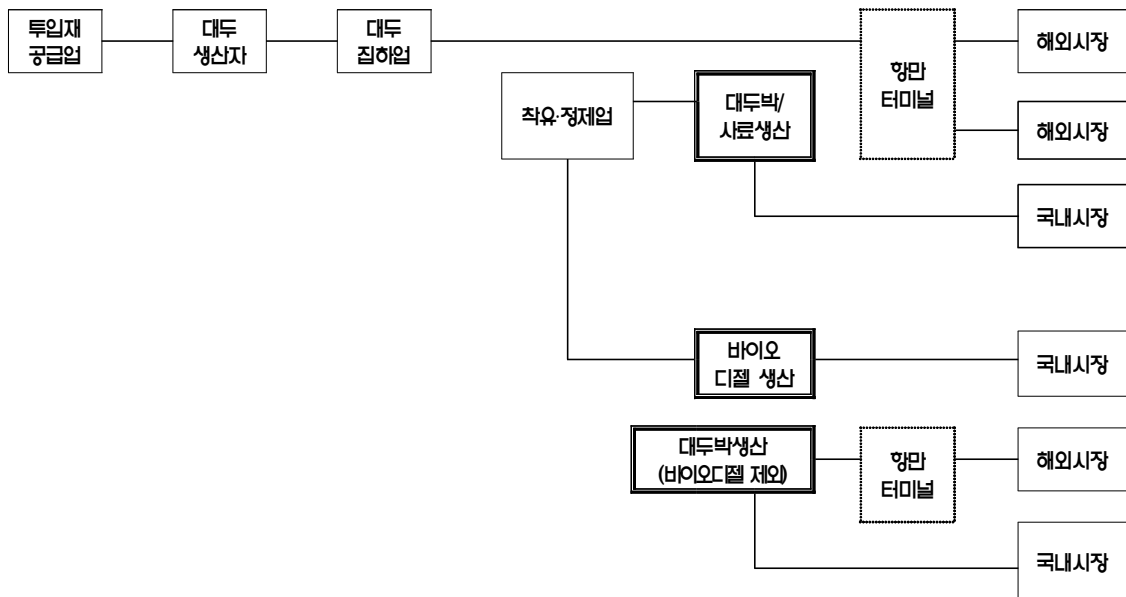
23) 글로비스·매니지먼트·인스티튜트編 (2005)『MBA経営戦略』ダイヤモンド社. p.101

에 따른 업계의 구조전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이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sup>25</sup>에 참가함에 따라, 일본 식물유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며, 업계 구조전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분석 도구로 이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그는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5가지 경쟁 요인’을 분석 틀로 이용함으로써 그 중심이 되는 산업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5가지 경쟁 요인’의 분석 골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고찰할 것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림 2>에 대두생산자에 대한 투입재 공급부터 대두 수출까지 브라질 대두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나타내었다.

그림 2 브라질 대두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자료: 林瑞穂,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 -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レポート에서 재인용

대두 집하업은 운전자금, 대두 저장 서비스와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두 생산

24)八木浩平 (2013) 「貿易自由化に伴う我が国植物油業界の構造転換-TPP参加による食品製造業への影響を中心に-」 『農業市場研究』 22(1).

25)환태평양 파트너십협정으로 통칭 또는 약칭으로 TPP11이라 한다. 기초(起草)는 2015년 10월 5일, 서명은 2016년 2월 4일 오슬랜드에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국간 관세철폐,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 보호기간 등)-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월 26일에 조문이 공개되고, 참가 12개국 이 2월 4일에 서명하였다. 교섭 참가국 12개국 중 미국은 2017년에 탈퇴하였으며, 미국 이탈 후, CPTPP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PP12」라 통칭하기도 한다. 참가 11개국 중 멕시코(2018. 6. 28.), 일본(2018. 7. 6.), 싱가포르(2018. 7. 19.), 뉴질랜드(2018. 10. 25.), 캐나다(2018. 10. 26.), 호주(2018. 10. 31.), 베트남(2018. 11. 15.) 등 7개국은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TPP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6월호(9권 3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에게 대두를 구입하는 한편, 브라질 국내 착유·정제업이나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두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으로 대두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 서플라이 체인을 <그림 1>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틀에 맞추면, 대두 집하업이 중심에 위치한 ‘업계’이며, ‘판매자’는 대두 생산자, ‘구매자’는 해외시장 및 국내의 착유·정제업이 된다. 또한, ‘신규 참가’는 곡물 집하에 참가를 시도하는 신규 집하업자가 된다. ‘대체품’으로는 대두의 이용목적이 가축사료로서의 대두박이나 바이오디젤 연료로서의 대두유 생산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가축사료나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옥수수가 일단 상정된다.

그러나 가축사료로서의 기능은 대두가 주로 단백질 공급인데 반해, 옥수수는 탄수화물, 즉, 에너지 공급에 있다. 바이오 연료 관점에서 대두유는 디젤 연료 대체품이다. 이에 반해, 옥수수는 가솔린 대체품으로서의 에탄올 원료인 것처럼, 제품의 용도에 차이가 있어 경합 관계는 적다.

또, 곡물집하업자는 대두와 옥수수를 모두 취급상품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대두에 옥수수는 ‘대체품의 위협’이 적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분석 틀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 분석에 사용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브라질에서 곡물 메이저는 예전부터<sup>26)</sup> 일본계 상사에 관한 최근의 사업 실태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 양적인 데이터마저도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본계 상사, 대두생산자 및 현지 농업 컨설팅 회사로부터의 청취 조사를 주요 정보원으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곡물 메이저에 대해서는 한정된 선행 연구나 보도를 정보원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취조사 대상인 일본계 상사 및 대두 생산자는 익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A사, B사 등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일본계 상사 6개 사(A사~F사)로 부터는 2017년 및 2018년에 각사의 곡물사업 전략과 브라질 대두산업 현황 이해 및 시장 특성에 대하여, 현지 및 도쿄(東京) 본사에서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두 생산자에 대해서는 2018년에 고야스 주 크리스탈리나 시에서 G사(농지면적 35,000 ha)과 개인농가 H씨(농지면적 2,400 ha)의 대두 판매처와 자금 조달에 대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현지에서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자본의 농업컨설팅회사 IEG/FNP, 브라질자본 집하 업체인 AgriBrasil 및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2018년에 대두생산자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26)치노(茅野)는 자신의 연구 茅野信行(2006)『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中央大学出版部. 를 통해, 곡물 메이저의 기업 활동에 관한 폭넓은 연구는 곡물 사업에 불가결한 비밀주의의 벽에 가로막혀 거의 보이지 않으며, 그 때문에 곡물 거래 관계자의 증언이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 4. 세계 대두 수급동향과 브라질의 위치

이 절에서는 대두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 대두 수급동향 추이에 대하여 정리한다.

<표 1>에 세계 대두 수급 추이를 나타내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능가하기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7/18년도 전 세계 생산량 및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브라질 2개국의 합계 비율은 각각 생산량 71.1%, 수출량 87.6%로, 이 2개국이 세계 대두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같은 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의 31.4%, 수입량의 61.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세계 대두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국명	1996/97	2006/07	2015/16	2016/17	2017/18(예측)
생산량	미국	64,780	87,001	106,857	116,920	120,039
	브라질	27,300	59,000	96,500	114,600	119,800
	아르헨티나	11,200	48,800	58,800	55,000	37,800
	기타	28,958	41,266	53,420	61,601	59,813
	전체	132,238	236,067	315,577	348,121	337,452
소비량	중국	14,309	46,120	95,000	102,800	106,000
	미국	42,317	53,473	54,462	55,712	58,973
	아르헨티나	11,565	35,093	47,654	47,834	42,194
	기타	65,827	89,920	116,816	122,519	129,633
	전체	134,018	224,606	313,932	328,865	336,800
수입량	중국	2,274	28,726	83,230	93,495	94,000
	EU	14,572	15,181	15,120	13,422	15,000
	멕시코	2,720	3,844	4,126	4,126	4,600
	기타	15,846	21,215	30,855	33,310	38,850
	전체	35,412	68,966	133,331	144,353	152,450
수출량	브라질	8,363	23,485	54,383	63,137	76,193
	미국	24,110	30,386	52,870	58,960	57,945
	아르헨티나	750	9,560	9,922	7,026	2,100
	기타	3,461	7,706	15,341	18,233	16,886
	전체	36,684	71,137	132,516	147,356	153,124

주 1: 1996/97년도는 FNP Consertoria & Agroinformativos(2003), 2006/07년도는 Informa Economics FNP(2013)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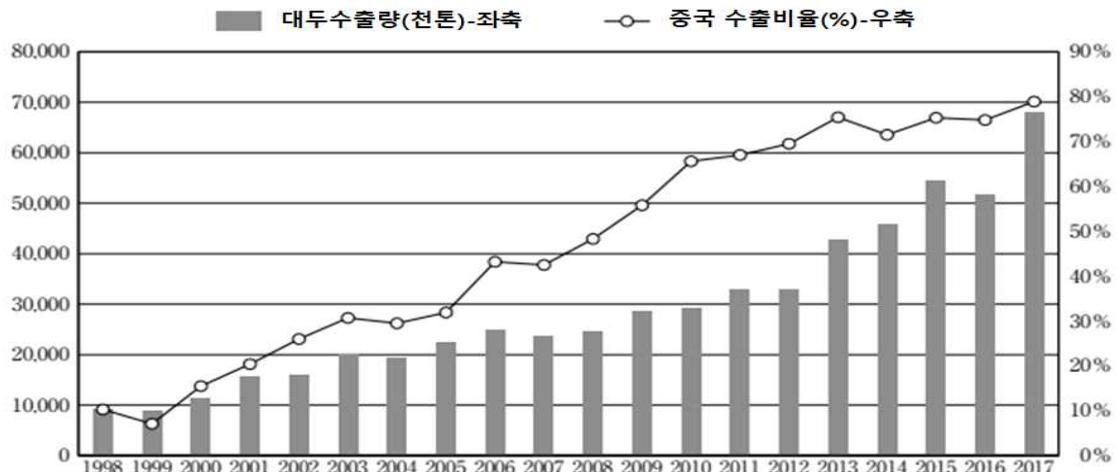
2: 2015/16년도부터 2017/18(예측)은 IEG/FNP의 2018년 10월 시점 집계 데이터

자료: 林瑞穂, ‘브라질大豆産業の構造変化 一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브라질 대두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두의 중국·브라질 두 국가 간 교역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

과 중국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수출량은 사상 최대인 68.1백만 톤이었다. 브라질 수출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9%(53.8백만 톤)이다(그림 3).

그림 3 브라질 대두 수출상황



자료: 林瑞穂, '브라질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중국 무역통계를 취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에서는 대두 수입 상대편과 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가 공표한 2017년 중국 대두 수입 총량은 95.5백만 톤이며, 중국 대두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비율은 56% 정도로 추계된다.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USDA/ERS)에 따르면, 2017년의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량은 32백만 톤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두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추산된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중국 대두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세계 대두시장의 주요국·지역의 변천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에는 브라질, <표 3>에는 미국의 주요 대두 수출 대상국(지역)에 대하여 198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마다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2 브라질 주요 대두 수출 상대국 변화

단위: 천 톤

	1986년		1996년		2006년		2016년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중국	0	0.0	15	0.4	10,769	43.1	38,564	74.8
EU	484	78.3	2,919	80.0	9,370	37.5	5,280	10.2
일본	114	18.4	317	8.7	220	0.9	454	0.9
기타	20	3.2	396	10.9	4,599	18.4	7,284	14.1
합계	618	100.0	3,647	100.0	24,958	100.0	51,582	100.0

주 1: 이 글에서 작성한 2018년 11월 시점의 EU 가맹국은 28개국(영국 포함)

2: 2018년 11월 시점에서 FAOSTAT 데이터는 2016년이 최신

자료: FAOSTAT. 林瑞穂, '브라질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표 3 미국 주요 대두 수출 상대국 변화

단위: 천 톤

	1986년		1996년		2006년		2016년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수출량	점유율(%)
중국	93	0.5	1,495	5.8	10,328	36.7	35,970	62.3
EU	9,125	45.2	8,406	32.4	2,964	10.5	4,914	8.5
일본	4,125	20.4	3,804	14.7	3,310	11.8	2,361	4.1
기타	6,859	34.0	12,256	47.2	11,518	41.0	14,525	25.1
합계	20,202	100.0	25,961	100.0	28,120	100.0	57,770	100.0

주 1: 이 글에서 작성한 2018년 11월 시점의 EU 가맹국은 28개국(영국 포함)

2: 2018년 11월 시점에서 FAOSTAT 데이터는 2016년이 최신

자료: FAOSTAT.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브라질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된 사실은 1986년 및 1996년 시점에는 현재의 EU가 주요 시장이었으나, 점차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여 2016년에는 중국이 압도적인 수출 대상 국가(지역)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대두 수출량 변화를 보면, 1986년에는 618천 톤으로 미국 수출량의 3% 정도였던 것에 비해, 1996년에는 약 6배인 3,647천 톤, 2016년에는 약 83배인 51,582천 톤으로 급격한 수출 확대를 이루고 있다.

세계의 대두 주요국·지역은, 치노(茅野, 2006<sup>27)</sup>)에서도 지적하듯이, 2000년대까지는 수요는 EU와 중국이라는 양대 수요국, 공급은 미국과 남미라는 2대 공급 국가로 총 4개 대량 수급 국가라는 구도였지만, 2016년에는 수요로는 중국, 공급으로는 미국과 브라질이라는 3대 수급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sup>28)</sup>.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세계의 대두시장에서 브라질의 중요성은 눈에 띄게 커졌다.

## 5. 브라질 주요 대두 사업자의 사업 전개

이 절에서는 브라질의 주요 대두 사업자로서 곡물 메이저, 브라질 기업, 일본계 상사 및 중국 기업을 다루고, 그들의 사업 전개 과정을 개관해 본다<sup>29)</sup>. 먼저, 주요 대

27) 茅野信行(2006)『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中央大学出版部.

28) 2000년 중국으로 수출한 대두의 물량은 브라질로부터 186만 톤인데 대하여, 아르헨티나로부터 292만 톤을 수입, 남미 2개국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대 중국 대두 수출량은 브라질에서 4,442만 톤, 아르헨티나에서 804만 톤을 수입하며, 브라질로 수출량이 아르헨티나 수출량을 크게 웃돌았다(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9)「世界の食料需給動向と中長期的な見通し-世界食料需給モデルによる2028年の世界食料需給の見通し-」, [http://www.maff.go.jp/primaff/seika/attach/pdf/190304\\_2028\\_02.pdf](http://www.maff.go.jp/primaff/seika/attach/pdf/190304_2028_02.pdf)(2019년 5월 28일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두의 주요 공급국·지역에 대해 2000년대는 ‘미국과 남미’ 라고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브라질’ 로 하였다.

29) 이 글에서는 곡물 메이저와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일본계 기업으로서는 농협계가 아닌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곡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의 미국 자회사 전농그레인(주)은 브라질에 전농그레인브라질홀딩스(유)를 설립하여 2017년 1월 17일에 이 회사를 통해 Amaggi나 Louis Dreyfus가 출자하는 곡물집하업자 ALDC에 출자하여, 브라질 대두이나 옥수수 집하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대두

두 사업자의 활동 지역과의 관계에서 브라질의 대두 생산 지역을 확인한다.

브라질은 면적 851만 km<sup>2</sup>, 동서 4,319 km, 남북 4,394 km라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Mundo Educação<sup>30)</sup>), 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보면,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라질 전국을 북부, 북동부, 중남부, 남동부의 5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4 브라질 대두 생산지역



브라질에 대두가 전해진 1882년 이후 대두는 남부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었지만,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라도 지대<sup>31)</sup> 개발을 계기로 1980년대 경부터 중서부, 1990년대에는 북동부, 2000년대에는 북부로 생산 지역이 북상하고 있다<sup>32)</sup>. 현재의 브라질 대두생산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서부가 45.2%, 남부가 32.4%, 북부 동북부를 합쳐 14.9%, 남동부가 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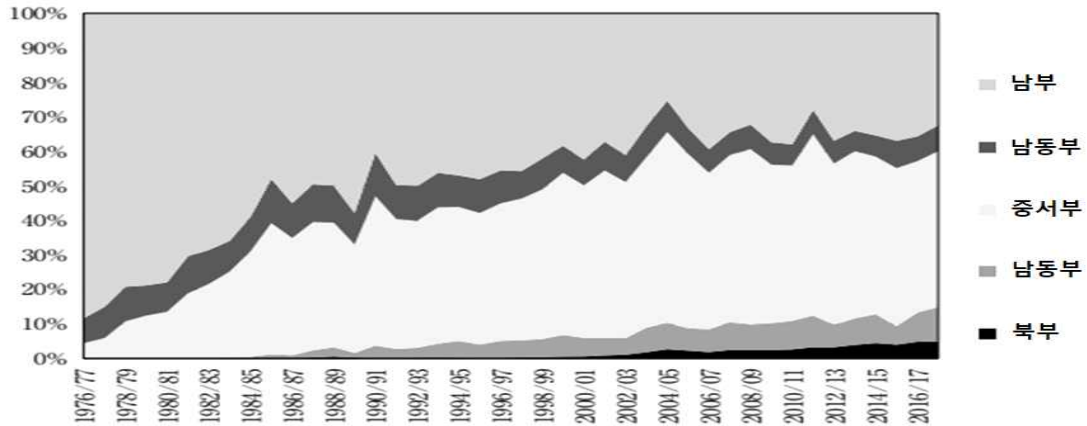
산업의 다국적 기업으로는 농약을 취급하는 화학 메이커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대두의 집하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곡물 메이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0)Mundo Educação, 'O território brasileiro esua extensão', <https://mundoeducacao.bol.uol.com.br/geografia/o-territorio-brasileiro-sua-extensao.htm>(2018년 8월 1일 참조).

31)브라질 생태군계는 아미조니아 지역, 세라도(밭음상 세하도라고도 함) 지역, 카칭가 지역, 대서양연안산림 지역, 판타날 지역, 팜파 지역 등 6개 지역이 존재함.(출처: 브라질 환경성 웹사이트 <http://www.mma.gov.br/biomas>)

32)EMBRAPA(브라질 농목연구공사)에 따르면, 북부 및 북동부에 속하는 마라논, 토크친스, 피아우이, 바이아 등 4개 주의 머리글자를 딴 마토피바(MATOPIBA) 지역은 중서부에 이은 곡물 생산에 있어서 신흥지역으로 호세프 대통령 시절(2014년~2016년 5월)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그림 5 브라질 대두 생산지역의 변천



자료: 林瑞穂, '브라질 대두 산업의 구조 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고찰-',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브라질의 주요 대두사업자가 서플라이 체인의 어느 부분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브라질 주요 대두 사업자의 서플라이 체인

	국적	투입재	생산	집하	보관	수송	착유/정제	항만 터미널	비고
ADM	미국			*	*	*	*	*	1997: 브라질 진출. 2014년 비료부문을 Mosaic사에 매각
Bunge	네덜란드	*		*	*	*	*	*	1905년 브라질 진출. 2012년 비료부문 매각하고, 투입재 비즈니스는 계속
Cargill	미국	*		*	*	*	*	*	1965년 브라질 진출. 2004년 Cargill 비료부문과 IMC사가 합병하여 Mosaic사 설립
Louise Dreyfus	프랑스	*		*	*	*	*	*	1942년 브라질 진출. 2008년 비료부문 진입
COFCO	중국	*		*	*	*		*	2014년 Noble사 및 Nidera사 매수
Amaggi	포르투갈	*	*	*	*	*	*	*	1977년 설립
이토추	일본								개시 정보가 한정적 2014년 Naturalle사에 50% 출자
스미토모 상사	일본	*							2015년 Agro Amazonia사에 65% 출자
소지츠	일본		*	*				*	2013년 CGG그룹 출자
토요타통상	일본			*	*			*	2015년 NovaAgri사에 100% 출자
마루베니	일본							*	2011년 Terlogos사에 100% 출자(당초 출자는 2005년)
Gavilon	일본			*	*				2012년 미국곡물사업회사 Gavilon에 100% 출자
미쓰이물산	일본		*	*	*	*		*	2011년 Multigrain AG에 98.1% 출자(당초출자는 2007년). 2013년 합병회사 SLC-MIT사 설립. 2013년 VLI S.A.에 20% 출자
미쓰비시상사	일본	*	*	*	*			*	2011년 Agrexdo Brazil사 설립. 2013년 Los Grobo ceagro do Brazil사에 80% 출자(당초 출자는 2012년). 현재는 Agrex do Brazil S.A.로 통합

주: 미쓰이물산은 2018년 5월의 브라질로부터 철수 발표 이전을 보여줌. 동 회사는 브라질 농약제조판매회사에 출자하기로 2019년 2월에 발표.

자료: 林瑞穂, '브라질 대두 산업의 구조 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고찰-',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

곡물 메이저의 브라질 진출 시기 자체는 Bunge가 1905년, Louis Dreyfus가 1942년, Cargill이 1965년으로 이른 시기에 진출하였고, ADM이 1997년에 진출하여 곡물 메이저인 ABCD가 모두 진출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곡물 메이저가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된 것은 1990년 대였다<sup>33)</sup>.

곡물 메이저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살펴보면, 대두 생산부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류에 해당하는 투입재 판매에서 하류에 해당하는 항구만 터미널까지 기업 집단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브라질 자본기업인 Amaggi는 1977년 남부지역 파라나 주에 종자회사를 설립하고, 1979년 중서부 마토그로소 주에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대두와 곡물 재배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는 중서부를 거점으로 하여 저장시설 건설 등을 진행하여 서플라이 체인 확대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28만 ha 농지를 보유한 브라질 유수의 대두 생산자이며, 최대 지역 대두 사업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일본계 상사에 대해 알아본다. 마루베니(丸紅)는 2005년,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은 2007년부터 브라질 대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많은 일본계 상사들이 본격적으로 브라질 대두산업에 투자하게 된 것은 2010년 대 부터이다. 지역적으로는 곡물 메이저가 브라질 대두 생산지역에 혼재하여 진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계 상사는 중서부 외에 신흥 대두 생산 지역인 북동부 및 북부를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본계 상사가 구축하는 서플라이 체인은 투입재 판매만을 하는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나 남부 샌프란시스코 도 술에 항만 터미널을 가지고 출구에서 대두 조달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루베니(丸紅)<sup>34)</sup>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을 전개하고 있다.

곡물 메이저와 비교하면, 일본계 상사의 사업은 브라질 국내 시장을 위한 대두 착유·정제 부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철도회사 VLI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송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집하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각 회사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이나 미쓰비시상사(三井物産)는 곡물 메이저가 참가하고 있지 않은 대두 생산에도 착수함으로써 대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 상류에서 집하업을 강화하고 있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지츠(双日)이나 토요타통상(豊田通商)은 북동부 지역인 말라농 주에 위치한 이타키 항구의 터미널 사업 투자를 통해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부터 집하 사업을 강화하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영기업인 COFCO의 움직임을 정리한다. COFCO는 중국 최대의 식량 무역회사이면서 가공업자이다. 이 회사는 2014년 네덜란드 곡물상사인 Nidera

33) 茅野信行(2006)『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中央大学出版部.

34) 마루베니(丸紅)는 본사에 의한 항만 터미널 사업 이외에, 2012년에 마루베니에 의해 매수된 미국 곡물사 업체 Gavilon이 브라질에서의 대두 집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와 싱가포르 곡물상사 Noble을 인수함으로써,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였다. 중국 농정 기본방침은 매년 발표되는 1호 문건에 나타나 있는데, 2014년 1호 문건에서 식량안전보장 방침으로 ‘곡물의 기본자급과 식용식량의 절대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 농작물 시장을 이용하여 농업 자원 조달을 한층 더 추진해 간다’는 점이 제시되었다<sup>35)</sup>.

이 방침은 쌀이나 밀과 같은 식용곡물은 자급을 견지하는 동시에 대두와 같은 사료용 작물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조달을 강화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2014년 인수로 브라질에 거점을 확립한 COFCO의 행동은 같은 해 1호 문건의 방침을 반영하여, 중국 스스로 대두 조달능력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곡물 메이저나 일본계 상사는 브라질로부터 중국으로 대두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두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중국시장을 잠식하는데 노력해 왔다. 곡물 메이저는 중국 국내에 대두 착유·정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두 산지인 브라질에서 최종 소비지인 중국까지의 일관성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자사 그룹 내에 구축하고 있다<sup>36)</sup>.

또한, 일본계 상사는 COFCO나 정부계 곡물 비축기업 Sinograin 등 대두 착유 및 정제공장을 보유한 중국계 기업과 업무제휴를 연결함으로써, 최종 소비지인 중국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sup>37)</sup>.

## 6. 5가지 경쟁요인에 따른 분석

1980년대 경까지는 미국만이 대두를 세계에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 경부터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점차 확대되어, 2010년대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추세를 따라 풍부한 자금과 정보를 가진 곡물 메이저는 1990년대 무렵까지 브라질 대두산업에 진출하여, 2000년대에는 그들이 구축한 대두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 브라질을 흡수하였다. 이 시점까지의 브라질 대두산업은 곡물 메이저가 매우 큰 우위성을 가진 구조였다.

유가(油價) 상승에 의해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비용이 상승하고, 바이오 연료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수반한 곡물 등의 수요 증가, 호주 가뭄, 그리고 투기자금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2006년 가을부터 2008년 여름에 걸쳐 곡물 등 국제상품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 후, 2008년 리먼 쇼크<sup>38)</sup>에 의해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계

35)河原昌一郎(2015)「第3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中国」『プロジェクト研究[主要国農業戦略]研究資料』第4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p.115

36)Nepstad, I. (2017) China'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20Soy%20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37)ブレーンズ(2017a)『総合商社の専門情報誌 ブレーンズ』No.2180:ブレントラスト社 및 브레인지(2017b)『総合商社の専門情報誌 ブレーンズ』No.2181:ブレントラスト社

38)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속 세계인구 증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한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지나 수자원이 유한하고, 최근의 이상기후 등에 기인하는 공급 제약도 여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 및 신흥국에 있어서 식량 확보는 계속 중요한 과제였다<sup>39)</sup>.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대에 일본계 상사와 중국계 기업이 곡물 메이저가 지배적인 입장에 있던 브라질 대두산업에 참가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5가지 경쟁요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브라질의 대두산업의 업계구조를 분석한다. (1)에서는 곡물 메이저가 우위에 있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또 (2)에서는 신규 집하업자가 많이 참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2010년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다음, (3)에서 위의 두 시기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한다.

## (1)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브라질 대두집하업

### 1) 신규진입 위협

포터(2001)<sup>40)</sup>는 신규 참가의 위협’을 참가 장벽이나 기존 업계 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참가 장벽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자금의 필요성’, ‘규모에 관계없는 비용면에서의 불리’, ‘유통 채널에 의 액세스(접근)’, ‘정부 정책의 역할’ 이라는 6개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기 6개 항목을 채택하여 브라질 대두집하업의 참가장벽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 시기의 신규 참가 상황에 관해서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2절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포터의 분석 틀에 맞추어 정리한다.

우선, ‘규모의 경제’ 에 대해서이다. 규모 경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업계에서는 신규 참가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 대두는 상품으로써 균질화되어 있으며, 단가가 낮은 동시에 이익도 적어,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을 취

---

하면서 그 영향이 세계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여 리먼쇼크라고 말하고 있다.(출처: 네이버인, <https://kin.naver.com/qna/>). 리먼쇼크 당시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이 공매도 규제에 대한 것으로, 1)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매도를 부추겨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지 않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네이키드 숏셀링’ 즉,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네이키드 숏셀링을 금지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의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만 가능하고, 개인은 대주를 통해 가능한데, 사실상 제약이 많다.(출처: 네이버인, <https://kin.naver.com/qna/>)

39) 小泉達治(2018) 「バイオ燃料が世界の食料需給及びフードセキュリティに与える影響」 『農林水産政策研究』 第28号와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판 사이트(2014) 「第1回食料危機ははじまっている」 (2014년 5월 12일, <https://natgeo.nikkeibp.co.jp/nng/article/20140501/395345/?P=1>(2018년 8월 3일 참조) 그리고 日経ビジネス(2012) 「食糧非常事態宣言-爆食と凶作の時代を生き抜く-」 『日経ビジネス』 2012년 8월 27일호: 日経BP社.

40) 포터, 마이클 E(2001) 『競争戦略論 I』 다이아몬드社.

급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요구된다.

따라서 집하 규모를 확대하여 대량으로 수송함으로써 단위당 비용을 가능한 한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곡물 메이저는 이를 위해 대형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다<sup>41)</sup>. 이처럼 대두사업은 규모의 경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업계이며, 그래서 진입장벽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품의 차별화’이다. Wesz Junior(2011)<sup>42)</sup>가 지적한 것처럼, 대두박이나 대두유 등 제품은 품질에 의한 차별화를 피하기 어렵다. 또, 대두 자체도 상품으로서 균질성이 요구되므로 품질면에서의 차별화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자금의 필요성’이란 기업에 의한 설비 투자나 운전자금,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실시하는 자금력을 의미하며, 그 다과(多寡)를 참가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계 상사인 A사도 지적하고 있지만, 대두 조달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포섭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저장 서비스 제공이나 운전자금 공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장창고 건설과 대두 생산자의 여신 리스크를 허용하고, 용자를 실시하기 위해, 대두 집하업은 이에 상응하는 자금력이 요구되는 업계이다.

‘규모에 관계가 없는 코스트면에서의 불리’란 규모의 경제와는 관계가 없는 기술, 원재료에의 액세스와 입지조건 등 비용면에서의 우위성을 의미하며, 브라질의 주요 대두 생산지역인 중서부와 남부의 생산자와 관계유무가 진입장벽에 해당한다. 이미 참가하고 있는 집하업자는 이들 지역의 생산자와의 강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편, 신규 참가 기업은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통 채널에의 액세스’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나 브라질 국내의 사료·대두유 제조업에 대한 접근을 가리키지만, 대두 생산자와의 관계 구축과 마찬가지로 신규 참가 기업은 이것에 새롭게 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이다. 이는 정부에 의한 신규 참가에 대한 규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대두산업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96년에 공포된 보족법(補足法) 87호<sup>43)</sup>와 같은 농산물 수출진흥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환경 요인에 의해 2008년까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수준(BBB-/Baa1 이상)이 아니었던 것(아래 그림 6 참조) 등이 외자계기업의 투자판단에 대한 제약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sup>44)</sup>.

41) 茅野信行(2006)『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の発展』中央大学出版部. p.177

42) Wesz Junior, V. J.(2011) Dinâmicas e estratégias das agroindústrias de soja no Brasil, Sociedade e Economia do Agronegócio.

43) 보족법 87호는 수출산물에 대한 상품유통서비스세(ICMS)의 부과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통칭 Kandir법으로 불린다. ICMS는 주에 속하는 세금으로 상품 유통에 대해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중 하나이다(都築慎一(2002)『ブラジルの税制体系—改訂版』ジャパンデス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サービス).

44) 국가신용등급 외에도 환율도 제약으로 여긴다. 1994년 6월 물가안정 도모 레알계획 실행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미국 달러에 대하여 브라질 통화 환율을 고정하고, 외화 준비에 따라 통화 발행을

이상을 근거로 하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은 신규 사업자의 참가 장벽이 높고, 특정 기업에 집중하기 쉬운 업계였다. 대두집하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 외에 생산자에 대한 접근과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 곡물 메이저와 같은 대규모 사업자가 요구되는 것 외에, 2008년경까지는 브라질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하였다는 점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있어서는 곡물 메이저 이외의 기업에 의한 본격적인 진입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판매자 및 구매자의 협상력

다음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곡물메이저는 운전자금을 대두생산자에게 융자해 주는 대신에 수확 시에 일정량의 대두를 인수하는 청전매입(靑田買入)이나, 농약이나 종자 등과 같은 투입재를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수확 시에 대두를 확보하는 교환계약(Barter Contract<sup>45)</sup>)을 통해, 판매자에 해당하는 생산자를 압박하였다<sup>46)</sup>.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이들 곡물메이저는 브라질 국내 구매자에 해당하는 착유·정제 기업 매수를 통해, 1990년대에 브라질에서 대두 서플라이 체인의 수직통합을 실시하였다. 한편, 수입국인 중국에서도 곡물 메이저는 1990년대에 착유·정제 공장을 설립하고, 200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두 착유·정제의 약 70%를 담당하게 되어, 중국 시장도 자사 그룹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다<sup>47)</sup>.

---

하기 위해 교체 앵커제를 채택한 것으로, 도입 당초에는 1달러=1레알이었. 그 후, 1995년 3월에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밴드제가 채택되어 1 달러=0.860.90레알(더우기 같은 달 1 달러=0.880.93 레알로 변경)의 변동 폭이 정해졌다(Silva, M. L. F.(2002) Plano real e âncora cambial, Revista de Economia Política, vol.22, No. 3 (87)). 레알화 계획으로 브라질의 물가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환율 과대평가가 발생하여 1999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기 이르기까지 수출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45)거래 또는 무역의 방법 중 물물교환(Barter Trade)이란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이 직접 교환되는 거래를 말하며, 이에 비해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란 수출입에 따른 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Back to back L/C, Escrow L/C, Tomas Credit 등 특수 신용장이 사용된다. 주로, 두 나라 사이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거래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거래방법으로 대응구매(Counter purchase)가 있다. 대응구매방법은 수출을 하는 대가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거래방법이다. 구상무역과 비슷하나,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되나, 대응구매는 2개의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협력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는 제품환매와 합작투자가 있다. 제품환매(Buy Back)란 플랜트 등 공장설비나 기술을 수출하고, 해당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 하는 형태의 거래로, 직접보상(Direct Compensation) 이라고도 한다, 즉 자본재 수출방식이다. 합작투자란 자본참여, 판매망 등의 형식으로 자본을 투자한 자가 수출업처럼 대우의 의무를 부담하여 거래하는 방법이다. 또한, 상계거래(Offset) 거래방식은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방법으로, 고가의 군사장비나 항공기, 고속전철 등을 수출할 때 선진기술 이전 등을 의무화 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 거래방법은 수입국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나는 김과장(nabi165, <https://blog.naver.com/nabi165/221660170781>))

46)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Palgrave Macmillan. pp.55-58.

47)Nepstad, I. (2017) China’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20)

이상과 같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곡물 메이저의 입장은 강하며, 판매자 및 구매자의 교섭력은 곡물 메이저에 대해 매우 약하였다고 생각된다.

### 3) 업계 내 경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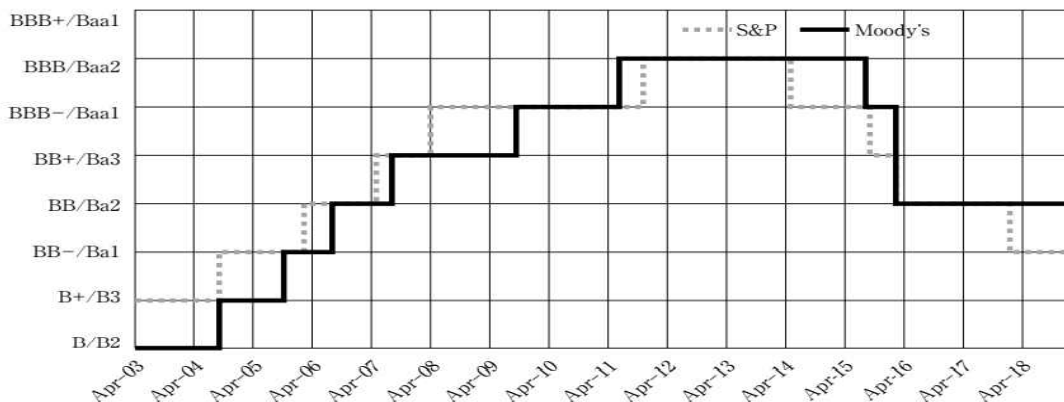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브라질에서의 집하업은 ADM, Bunge, Cargill, Dreyfus 곡물 메이저 위주로 구성된 과점 상태였다. 때문에, 경합 환경은 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2010년대의 브라질 대두 집하업

### 1) 신규진입 위협

브라질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추이는 양호했기 때문에 외부 등급설정 기관인 S&P 사는 2008년에, Moody's사는 2010년에 브라질 국채의 등급설정을 투자 적격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그림 6).

그림 6 브라질 국채(기간 5년)의 등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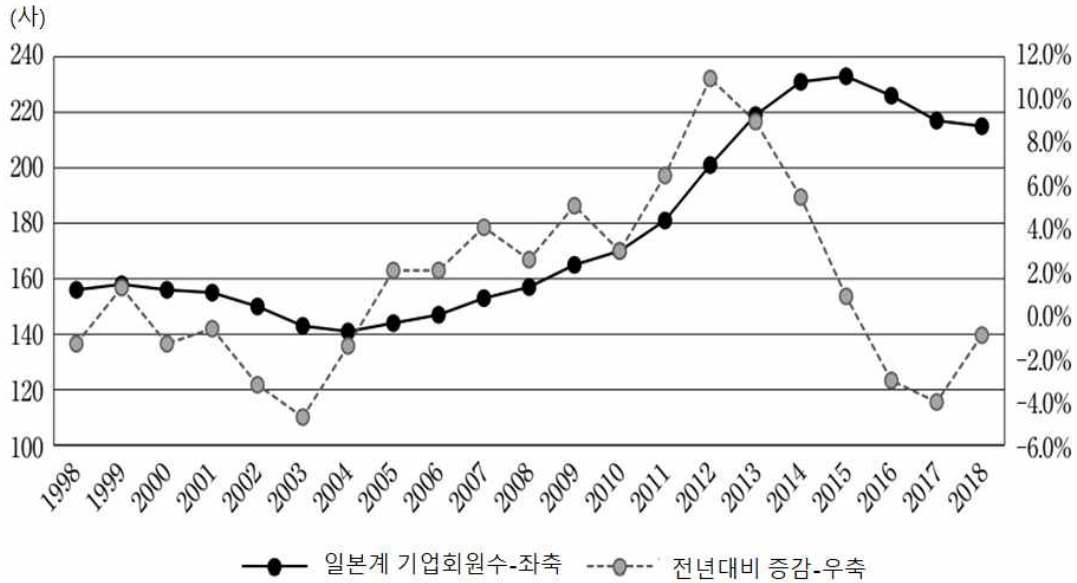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브라질 일본상공회의소의 일본계 기업회원 수는 2008년에는 1999년의 158사 부근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에도 증가하였다(그림 7).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혼란과 경기침체에 빠진 2015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신용등급에 나타나는 브라질의 투자환경 개선은 일본계 기업의 투자 판단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sup>48)</sup>.

20 Soy% 20 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p.12.

48)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海外滞留邦人數 調査統計' 에서는 2004년 이전의 일본계 기업 진출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998년 이후부터 장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브라질 일본 상공회의소의 회원 수 추이를 이용하였다. 일본 외무성에 의하면, 브라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수는 2008년경에 305개사 정도로 추이하고 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705개사로 급증하였다. 증가율에는 차이는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일본계 기업회원 수와 같은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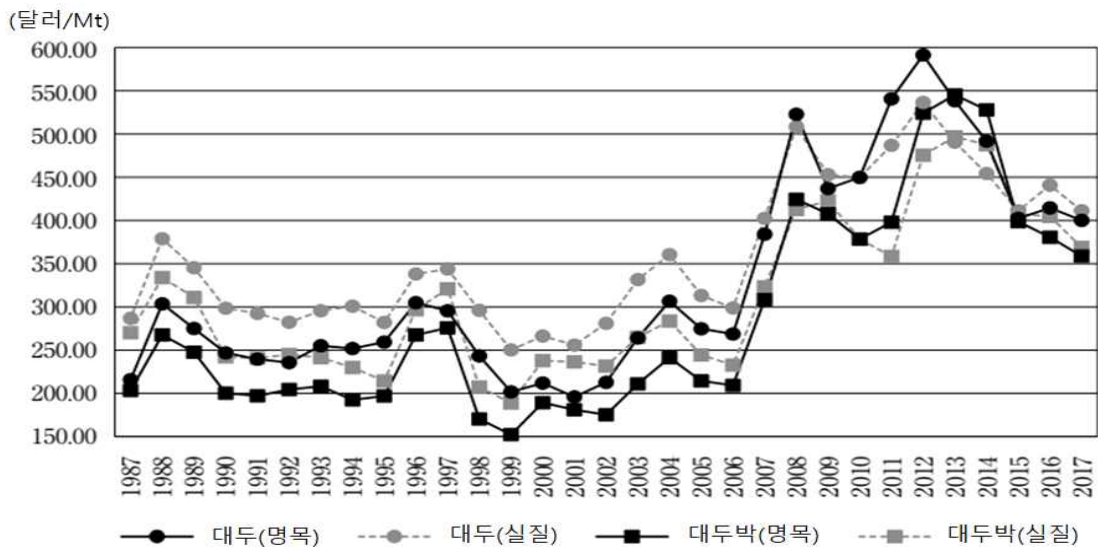
그림 7 브라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상공회의소 회원수 추이



자료: 林瑞穂, '브라질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또한, 곡물·유량 종자를 둘러싼 세계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로테르담의 C.I.F 기반 대두 및 대두박 국제가격 추이(수치는 세계은행에 의함)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리먼 사태와 중국의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되었지만, 대두 및 대두박 모두 2006년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림 8 대두 및 대두박 국제가격 추이



자료: 林瑞穂, '브라질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대두와 대두박의 실질가격 수준은 1990년대 10년 평균 각각 298.0달러, 242.7달러, 2000년대 10년 평균 347.1달러, 289.0달러, 2010년대 8년 평균 460.2달러, 422.0달러 등이다.

이러한 브라질의 투자 환경 개선과 가격 상승에 수반하는 대두사업 수익성의 개선을 고려하면, 2010년대는 자본력을 가진 일본계 상사의 입장에서 브라질 대두산업에 진출할 환경이 갖추어진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9)</sup>.

또, 이들 상사의 곡물·유량 종자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다. 각 일본계 상사의 곡물·유량 종자 사업은 2000년대 이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 상류(商流)를 중심으로 삼고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삼국 간 무역에 있어서 상류로 다시 파악되었다. 즉,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 등에서도 안정된 조달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표 5).

표 5 일본계 상사의 곡물사업에 관한 전략

이토추	· 식품 사업으로서 국내의 자원 개발에서 소매까지의 공급망을 수직 통합 할 방침이다. 곡물 사업도 일본아시아 지역의 안정 공급을 기본으로 임한다. · 미국에 전농과 공동 인수 한 곡물 집하 물류업체인 CGB와 Bunge 자회사와 합작으로 설립 한 곡물 수출 터미널인 EGT를 가지고 있다. · 중국과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판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 중국 최대 식량 무역 회사이며 가공업체인 COFCO과 포괄적 전략 제휴를 맺은 것 외에 하이룽상성농장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스미토모상사	· 거래 볼륨이 아니라 강점을 살릴 특정 고객이나 사업 회사를 위한 거래에 축을 둔다. 밀 거래에 강점이 있고, 곡물 물동량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밀 생산국이며, 또한 아시아 시장에 근접하여 지리적 우위성이 있는 호주 Emerald Grain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2006 년에 아시아 제분·식품 기업 Prima와 제휴를 맺은 것 외에 2008년에 중국 冠華糧 오일 식품에 출자 제분사업에 진출하였다. 그 외, 한국 식품 대기업인 CJ Cheil Jedang과 좋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의 西王집단과 전략 합의를 체결하고, 중국으로의 곡물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소지츠	· 생산지에서 아시아를 연결 곡물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곡물 산지인 브라질은 이타키 항구 터미널에 출자하고 있다. · 밀에 강점이 있으며, 미국·캐나다·호주 식재를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 그 외에도 베트남 지역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가축 사료 공급망을 구축한다.
토요타통상	· 곡물 기업의 사업 전략은 북미와 남미에서 안정적인 조달을 도모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로를 넓힐 방침이다. · 브라질에서는 이타키 항구의 터미널 사업을 실시하고있는 NovaAgri를 인수하였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료 수입 판매를 실시하는 Premier Grain에 출자하고 있다. 동남아 외에 중국에도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마루베니	· 2003년경부터 일본으로의 수입에서 한국·대만·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삼국 간 무역을 시작하였다. 곡물 사업공급망에서 미국과 브라질을 조달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에 Cavilon을 인수하였으며, 곡물 메이저의 ADM과 브라질 Amaggi와 제휴를 맺고 있다. 판매 측면에서는 2009년에 정부 계 곡물 비축 기업 Sinograin 그룹과 제휴를 맺은 것 외에, 동남아는 곡물마케팅 회사를 설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미쓰이물산	· 곡물 사업의 조달과 판매를 확보한 뒤, 중간 부분을 확충 방침이다. · 조달 측면에서는 미국, 브라질, 호주 외에도 2016년 아르헨티나 곡물 회사와 제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산지의 핵심으로 한 농업 생산에까지 발을 디디고 있으며, 브라질 농업 생산 사업 선도 SLC와 연계하는 등의 강화에 특징이 있다. · 판매 측면에서는 2009년에 중국 農牧기업인 신화집단과 업무 제휴를 맺는 등 한국과 일본 외에 중국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미쓰비시상사	· 2008년 ‘식량자원 종합정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식량자원 사업에 대한 종합 정책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제도를 갖췄다. 곡물 사업은 일본·중국·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요 확대와 브라질·미국·호주는 곡물 산지의 안정된 공급 기반 확립을 도모한다. · 조달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곡물 집하를 하고 있는 Agrex를 중심으로 자회사를 배포함으로써, 브라질 대두, 옥수수, 호주의 소맥을 중심으로 한 곡물을 확보한다. 또한 호주는 사료 제조까지 다룬다. · 판매 측면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제분 사업 회사에 출자하고, 수요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

49)일본의 식량안보와 일본계 종합상사의 해외투자 및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임송수, ‘일본의 식량안보 정책과 종합상사의 해외 농업투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계 상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 ‘상사-겨울의 시대’, 1990년대에 ‘상사 붕괴론’ 이나 ‘IT혁명 하의 상사 불필요론’ 이라는 상황에 있었다<sup>50)</sup>. 최근에는 일본의 산업구조가 중후장대(重厚長大)에서 경박단소(輕薄短小)로 전환되어 가는 가운데, 상사의 대응이 늦어진 점, 버블 붕괴 후의 대응에 시간이 필요로 하였다는 점, IT의 발달에 의해 중개업자로서 상사의 우위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상사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추궁당하고 있던 시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계 상사는 사업 모델의 변혁을 택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계 상사의 중심적인 사업이었던 상품매매 중개를 지속적으로 핵심사업의 하나로 유지하면서도, 취급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고, 이 외에 자사 그룹 산하에 있는 제조나 소매 등의 타부문과 그 취급 상품을 조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안전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곡물을 비롯한 식품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농산물 조달 외에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sup>51)</sup>.

이전의 일본계 상사는 독자적인 곡물 집하망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경우, 그 시점에서 일본계 상사는 곡물 메이저와 교섭할 필요가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곡물 메이저가 상사의 배제하고 직접 팔아 버리는 일도 있었다<sup>52)</sup>. 그러므로 일본계 상사는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걸쳐 중국의 곡물 비축회사나 곡물상사와 업무 제휴를 맺음으로써, 대두 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안정된 대두 조달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두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생산자에 가까운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개시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하면, 2010년대는 일본계 상사에 있어서 브라질의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투자 환경이 갖추어진 덕분에, 중국 수출 전용 대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의 대두 집하사업에 참가하여, 스스로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였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식량 정책의 전환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이 매수를 통해 브라질의 대두 집하사업에 진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 대였다. 브라질의 대두집하업자에 대해서는 단체등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업수의 추이는 불명확하지만, 미츠이(三井)의 야스나가 다쓰오(安永夫) 물산 사장이 브라질의 집하사업에 대해 ‘참가 당시 10여 개사 정도였지만, 지금은 50개사 정도’ 라고 2017년에 말하였다<sup>53)</sup>. 브라질 대두 집하업에 신규 참가자수가 2010년대에 현저하게 증가한 모습을 알 수 있다.

50) 亀岬睦也編 (2017) 『商社-グローバルな価値創造に向けて-』 一般社団法人日本貿易会.

51) 美甘哲秀編著 (2009) 『日本の食料戦略と商社』 東洋経済新報社.

52) 日経ビジネス (2012) 「食糧非常事態宣言-爆食と凶作の時代を生き抜く-」 『日経ビジネス』 2012년 8월 27일호: 日経BP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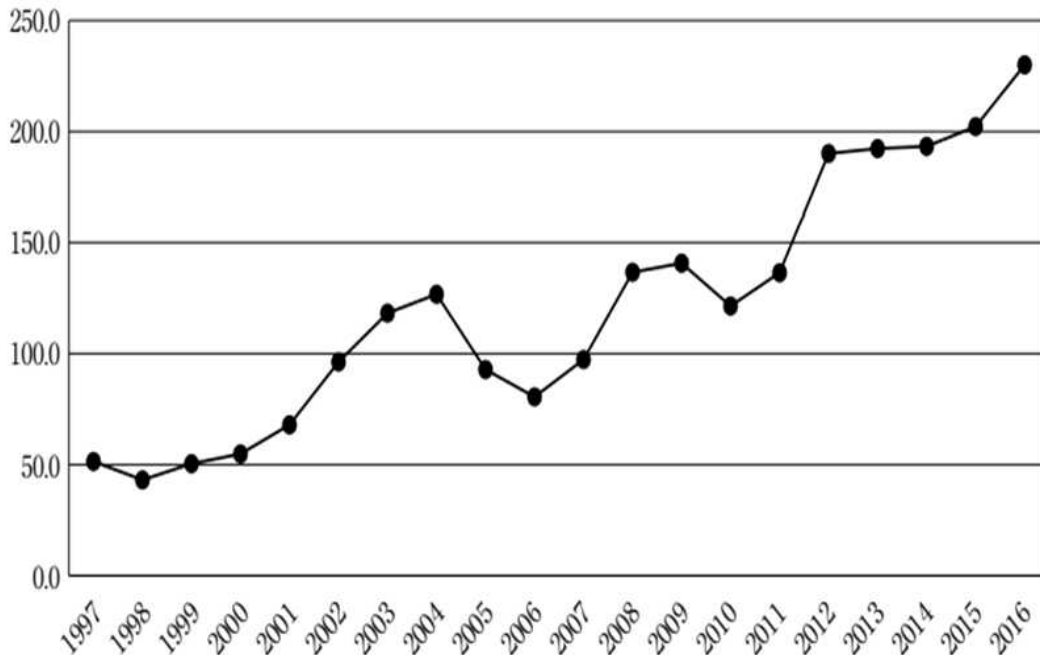
53) 高屋優理 (2017) 「大手商社, ブラジルの穀物事業で苦戦. 売却も視野」 『日刊工業新聞』 (2017년 11월 17일), <https://newswitch.jp/p/11057> (2018년 8월 1일 참조). 덧붙여 야스나가 씨의 발언에서는 동회사의 브라질 참가의 구체적인 년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동사의 브라질에 있어서의 대두 집하업에 참가하는 계기가 된 Multigrain AG 사에 출자한 2007년경으로 추측된다.

## 2) 판매자 및 구매자의 협상력

우선, ‘판매자’ 교섭력에 대해서는 필자인 하야시(林)가 청취한 일본계 상사 6개사 모두, 최근 대두 농가의 가격 교섭력은 향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마토그루토스 주의 대두 생산자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은 마토그루토스 주로 대표되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18년도에는 브라질 전체에서 120백만 톤에 육박하는 생산량을 전망하고 있지만, 중서부 전체의 생산량은 브라질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마토그루토스 주가 중서부에서 대두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또 브라질의 대두 생산자 가격은 2010년 이후 양호한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브라질 대두 생산자 가격지수 추이(2004-200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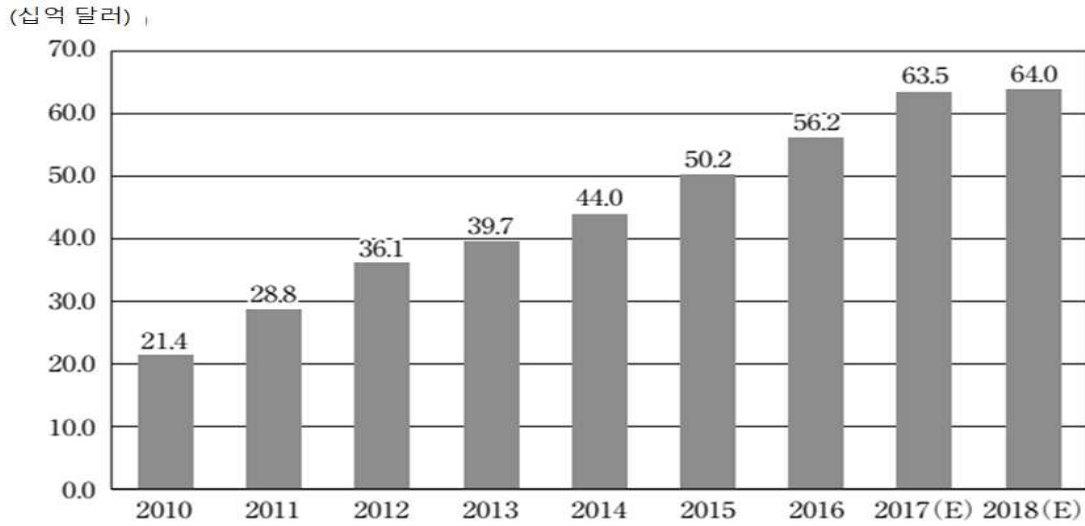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마토그루토스 주의 총농업생산가치(VBP)<sup>54</sup>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이에 214억 레알에서 640억 레알로 약 3배가 되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그림 10), 이 VBP의 반은 대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대두 생산량과 양호한 대두 생산자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마토그루토스 주의 대두 생산자 VBP도 증가 추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54) Valor Bruto da Produção의 약어로, MAPA(브라질 농무부)에서는 VBP를 ‘농업 생산자의 총매출고 (또는 총생산가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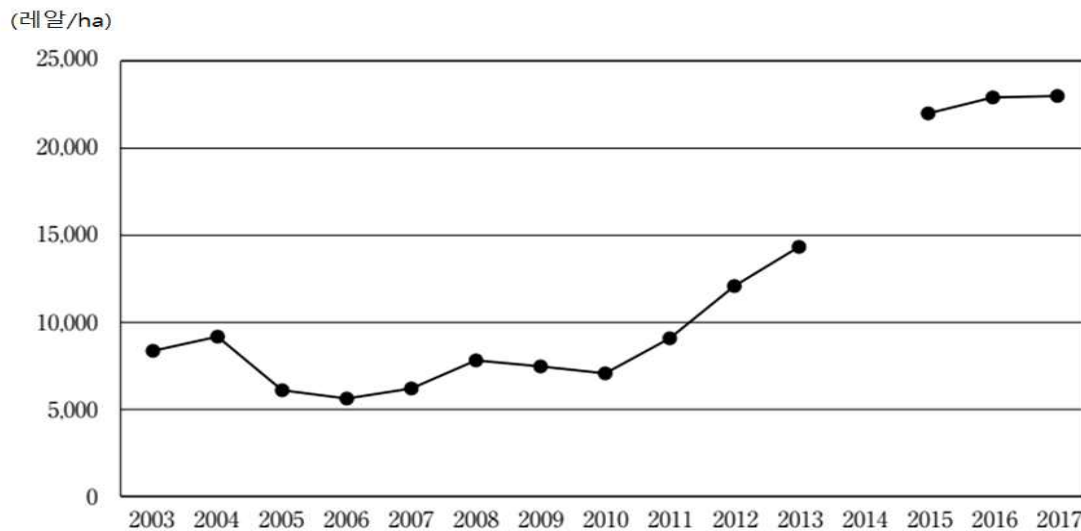
그림 10 마토그루소 주의 농업생산자 총생산가치(VBP) 추이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대두 생산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투입재를 구매할 때 생산자가 모여 투입재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Compra Coletiva' 라 불리는 상 관습이 있다<sup>55)</sup>. 이 방법을 통해 구입하면 생산자가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료 로는 10%, 종자로는 1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은 Lucas Rio Verde와 같은 주요 생산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변동이 안정되고 있 다(그림 11).

그림 11 마토그루소 주 Lucas Rio Verde의 농지 평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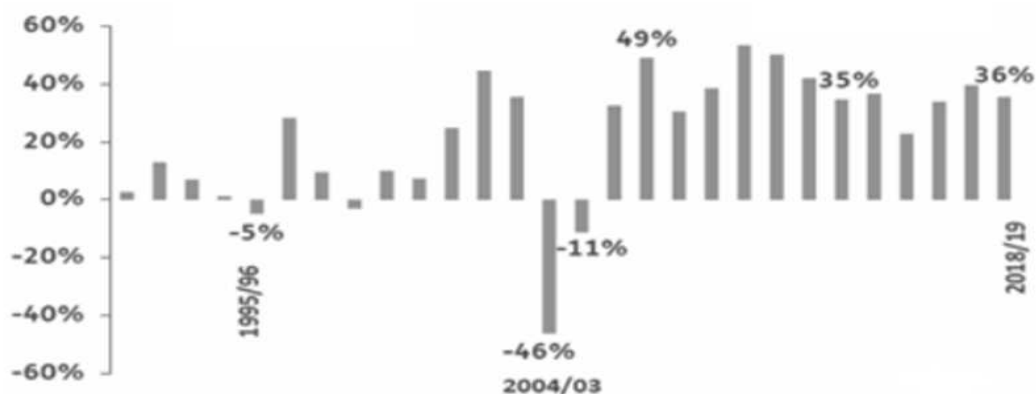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55) Agrolink. [https://www.agrolink.com.br/noticias/compracoletiva-de-insumos-reduz-custos-em-ate-15-destaca-aprosoja\\_205736.html](https://www.agrolink.com.br/noticias/compracoletiva-de-insumos-reduz-custos-em-ate-15-destaca-aprosoja_205736.html)(2019년 5월 30일 참조).

이와 같이 VBP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비용을 억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대두 생산자는 이익을 상용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 대두 생산자의 영업 이익률을 각 연도별로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이다. 그림에 의하면, 2005/06년도부터 2018/19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20% 이상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대두 생산자가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그림 12 브라질 대두 생산자의 영업 이익률 추이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리포트에서 재인용

또한, IEG/FNP는 하야시(林)의 청취조사에 대해, 마토그로소 주의 생산자들은 3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마토그로소 주를 중심으로 한 대두 생산자는 장기간에 걸친 양호한 수익 하에서 자기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어 재무체질이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대두 생산자의 기술 측면 변화에 대해 간단히 2가지 거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수확한 대두 저장시설의 변화이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대규모 생산자의 상당수는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생산자는 반드시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수확한 대두를 빨리 팔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아는 집하업체의 판매요청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2010년대 경부터 저장시설 건설 확장을 위해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의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경부터는 아르헨티나에 보급되어 있던 사일로백이라는 플라스틱 자루를 이용한 대두 보관 수법이 브라질 국내에서도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생산자라도 대두 저장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일로백은 저렴한 가격으로 브라질에서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만개를 이용한데 비해, 2012년에는 5만개, 2016년도는 8만개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sup>56)</sup>. 이는 생산자가 직면하는 브라질 저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sup>57)</sup>.

두 번째는 생산자의 대두 생산자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기술의 변화이다. 일본계 상사인 A사에 의하면, 브라질 대두 생산자는 대두 생산자 판매 가격에 대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대두를 매각하였는가 하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집하업자가 독점하고 있던 정보도 생산자가 액세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집하업체와 생산자 간의 정보 격차는 줄어들고 집하업자의 우위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의 협상력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대두 집하업자에서 브라질 국내의 판매처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브라질 대두의 해외 주요시장은 중국이지만, 지금까지 곡물 메이저로 대표되는 외자계 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 국내에서 대두착유·정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경부터 중국 정부는 이 분야의 외자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실시하여, 중국자본 기업을 늘리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곡물 메이저 등의 외자계 기업이 중국 국내 대두 착유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에는 반대로 중국자본 기업이 약 6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sup>58)</sup>. 곡물 메이저는 지금도 중국 국내에 대두 착유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힘은 약해져 버린 것이다.

또한, 브라질 국내 착유업에 대해서도 2010년경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곡물 메이저가 보유하는 공장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표 6).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구매자 교섭력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브라질의 각 기업마다 소유하고 있는 착유 공장 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DM	4	4	4	4	4	4	5	5	5	5
Bunge	6	7	7	6	7	9	9	8	8	8
Cargill	4	4	5	5	5	6	6	6	6	6
Dreyfus	3	3	3	3	3	3	3	3	3	3
COFCO	0	0	0	0	0	0	0	2	2	2
Amaggi	2	3	3	3	3	3	3	2	2	2
미쓰비시상사	0	0	0	0	0	0	1	1	1	0
기타	56	48	47	54	57	57	65	64	64	66
합계	75	69	69	75	79	82	92	91	91	92

자료: ABIOVE.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56) Navarro, K. (2018) Demanda no país por silosbolsa dobrou em 2017”, 31. 01. 2018, Valor Econômico. Presidência da República Casa Civil Subchefia para Assunto Jurídicos, LEI COMPLEMENTAR No. 87, DE 13 DE SETEMBRO DE 1996,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cp/Lcp87.htm](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cp/Lcp87.htm)(2018년 8월 2일 참조).

57) 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Palgrave Macmillan. p.69.

58) Nepstad, I. (2017) China’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20Soy%20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이상과 같이 브라질 대두 서플라이 체인은 ‘판매자’ 나 ‘구매자’ 의 교섭력이 강해져, 집하업자의 입장이 이전과 비교하여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하야시(林)의 청취조사를 실시한 일본계 상사의 일부가 ‘브라질 대두 집하업자는 현재 생산자에게 대두를 비싸게 구입하여 중국에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고 발언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 3) 업계 내의 경합

2010년대에는 브라질 대두 집하업에 있어 신규참가자 증가에 수반하는 경쟁격화 외에, 저장시설 설치·구입 등 투자나 철도 등의 수송회사와 체결하는 장기 의무인수계약(take or pay contract<sup>59</sup>)에 따른 운임 부담으로 인해, 집하업자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다<sup>60</sup>. 즉, 집하업자는 투자자본의 회전율이나 의무인수계약 계약에 따라 실제 대두 수송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수송회사에 대한 지불 의무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대두를 집하·판매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대두생산자는 대두 보관능력 향상이나 가격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신규 참가에 의한 집하업 증가라는 상황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여 주는 집하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빨리 대두를 입수하고 싶은 집하업자는 비싼 값으로 구매를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표 7>은 브라질 기업의 연도별 규모 순위를 집계한 ‘Valor 1000<sup>61</sup>’ 을 바탕으로 Bunge, Cargill, Luis Dreyfus의 브라질 현지법인 및 Amaggi의 2015년 및 2016년 매출고·영업이익·영업이익률을 집계한 것이다. 이 수치들은 전체 사업영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9)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테이크오어페이 계약(take or pay contract, 구매의무계약)에서는 구매자가 반드시 일정액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일정량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매자의 제반 사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정해진 최저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日本政策投資銀行「金融用語集」, <https://www.dbj.jp/glossary/ta.html>(2018년 8월 3일 참조).

60)Ribeiro, D. (2018) Why Grain Trades Are Facing Bad Times, <https://compar-agbrazil.blogspot.com/2018/03/why-grain-traders-are-facingbad-times.html>(accessed on August 3, 2018).

61)Valor 1000 홈페이지 <https://www.valor.com.br/valor1000/2019>

표 7 재브라질 대규모 곡물사업 회사의 재무 상황

단위: 백만 레알

	2015			2016		
	매출액	영업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	%
Bunge	35,773	1,436	4	35,341	984	3
Cargill	32,088	1,340	4	32,312	281	1
Dreyfus	16,126	994	6	16,104	-606	-4
Amaggi	12,685	889	7	12,025	776	7

자료: Valor Economico(2017).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에서 재인용

(3) 1990년대~2000년대와 2010년대의 브라질 대두 집하업 구조 변화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고찰해 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1)과 (2)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간과 2010년대 사이에 생긴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구조변화에 대해서 5가지 경쟁요인 중 ‘대체품의 위협’을 제외한 이하의 4가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구조변화 비교표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
신규진입의 위협	규모의 경제와 자본력 등을 구할 수 있으며, 브라질 국채의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의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장벽은 높음.	곡물의 국제 가격과 브라질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규모와 자금력을 갖고 있는 일본계 기업 및 중국계 기업들의 참가가 증가
판매자 교섭력	대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곡물 메이저에 의한 파고들기로 판매자인 생산자의 교섭력은 낮음.	대두 생산자의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집하업자에게 조속히 판매할 필요성이 낮으며, 집하업자의 신규 진입자 증가와 판매업체 증가. 생산자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짐.
구매자 교섭력	브라질 및 중국 착유·정제업이 곡물 메이저 서플라이 체인 안에 구매자 협상력은 낮음.	브라질의 착유·정제업 진입자와 중국의 착유·정제업의 중국자본 기업 증가. 곡물 메이저의 서플라이 체인 외부에서 움직이는 기획사업 증가로 인해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짐.
업계 내 경쟁	주로 곡물 메이저 4개 회사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짐.	이미 50사 정도의 택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환경은 더욱 심해지고 있음.

자료: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一考察-’,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

우선, ‘신규 참가의 위협’에 대해 검증해 보면, 브라질 대두 집하업의 신규 참가에는 사업 규모와 이에 상응하는 자금력, 중서부와 남부의 대두 생산자에 대한 액세스 외에도, 중국이나 브라질 국내 착유·정제 공장에 대한 판매 채널 확보가 요구된다. 게다가 2008년까지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니었으므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브라질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았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대두 국제가격 상승과 브라질 국채 상승 등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규모의 크기나 자본력을 가진 일본계 상사나 중국계 기업 등에 있어서는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판매자의 교섭력’에 대해 검증해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대두 생산자는 곡물 메이저로부터 자금이나 투입재의 제공에 의존하여, 이들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내에 간히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대두 생산자들은 좋은 생산과 양호한 수익을 바탕으로 자본 축적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생산자와 곡물 메이저 등의 집하업자 사이에 있던 보관 설비나 정보 면에서의 격차도 축소되어, 생산자는 스스로 팔고 싶은 시점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서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중국이나 브라질의 착유·정제업은 곡물 메이저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집하업자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 경에는 중국, 브라질 모두 곡물 메이저 그룹이 아닌 착유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곡물 메이저 등의 대두 집하업자는 구매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우위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업계 내 경합’에 대해서이다. 브라질 집하업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있어서는 곡물 메이저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신규로 집하업에 참가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경합관계가 격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 중 ‘대체품의 위협’을 제외한 4가지 항목 모두 1990년대부터 200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브라질의 대두 서플라이 체인의 대두 집하업자의 경쟁상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4가지 항목 각각 변화의 상호작용으로 2010년대에 집하업자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7. 맺음말

이 글에서는 브라질 대두집하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5가지 경쟁요인 분석’틀에 따라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브라질 대두산업은 곡물 메이저가 세계 규모로 구축한 대두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발전해 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브라질의 대두 집하업은 신규진입 장벽이 높고, 곡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업계구조가 기업그룹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무렵부터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수반하는 신규 참가의 증가에

의해 경쟁이 격화되었고, 판매자인 대두 생산자나 구매자인 착유·정제업의 교섭력 향상으로 동 업계의 경쟁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대두집하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가장 최근 상황으로 2018년부터 심해진 미·중 무역마찰로 브라질산 대두의 FOB 가격<sup>62)</sup>(파라나과)이 2017년 8월 현재 379.47달러(=417,417원<sup>63)</sup>)/톤으로 미국산 대두 FOB 가격(1등 걸프)의 3.5% 정도 추가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8월에는 393.36달러(432,696원)/톤으로 미국산 대두보다 17.3%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브라질의 통화인 레알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싸게 거래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두 생산자와 일본계 상사를 비롯한 많은 대두 집하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레알화 약세나 양호한 브라질산 대두의 FOB 가격이라고 하는 현상은 일과 성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검증해 온 대두 집하업 구조 변화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두 생산자의 가격 교섭력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집하업자 간 격렬한 경합에 근거하는 수익의 하향 압력은 동 업계 내의 도태가 진행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집하업자를 대상으로 한 때문에, 브라질 대두 생산자와 착유·정제업자의 시점에 분석이 이루어져 의미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집하업자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설비 등이 없는 ‘Asset Light(자산 경량화)’라 불리는 새로운 업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송회사와의 계약 형태를 재검토하는 등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2)FOB(Free On Board). 무역 상거래 조건의 하나이며, CIF(Cost Insurance and Flight)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CIF에서는 도착항까지 매도자의 책임). FOB가격이란 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상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https://terms.naver.com/>). 관련하여, 무역에 관한 거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선적 조건의 종류 중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운송규칙과 해상과 내수로 운송 가능한 규칙 2가지로 분류된다.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운송규칙에는 7가지가 있다. EXW(EX Work,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그 영업소 또는 공장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물품 운반과 수출통관을 할 의무가 없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는 매도인이 그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자에 인도하는 것이다. CPT(Carr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는 매도인이 그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제3자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내야한다. CIP(Carr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는 위의 CPT에서 운송보험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개정 전에는 DAT라 불렀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가 있다. 해상과 내수로 운송하는 규칙에는 4가지가 있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 선적 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선측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이후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FOB(본선인도가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CFR(Cost and Flight, 운임포함 인도)는 FOB단계에서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는 CFR에서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을 멸실 또는 손상의 유형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yjhjr8, <https://blog.naver.com/yjhjr8/221804045983>).

63)원/달러 환율은 1달러=1,100원을 적용하였다.

## 참고 문헌

- 임송수, '일본의 식량안보 정책과 종합상사의 해외 농업투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 허 덕, 박지원,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6월호(9권 3호)
- 亀岬睦也編 (2017)『商社-グローバルな価値創造に向けて-』一般社団法人日本貿易会.
- 河原昌一郎 (2015)「第3章 カントリーレポート：中国」『プロジェクト研究[主要国農業戦略]研究資料』第4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 グロービス・マネジメント・インスティテュート編 (2005)『MBA経営戦略』ダイヤモンド社.
- 小泉達治(2018)「バイオ燃料が世界の食料需給及びフードセキュリティに与える影響」『農林水産政策研究』第28号
- 竹中厚雄 (2013)「多国籍企業における企業の境界の理論的視角」『彦根論叢』2013 Winter, No.398.
- 高橋意智郎 (2018)「多国籍企業の海外直接投資の決定要因に関する理論の検討」『実践女子大学人間社会学部紀要』第14集).
- 高屋優理 (2017)「大手商社, ブラジルの穀物事業で苦戦. 売却も視野」『日刊工業新聞』(2017年11月17日), <https://newswitch.jp/p/11057>(2018년 8월 1일 참조)
- 茅野信行 (2006)『アメリカの穀物輸出と穀物メジャー の発展』中央大学出版部.
- 都築慎一 (2002)『ブラジルの税制体系-改訂版』ジャパンデス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サービス
- 三菱総合研究所 (2010)「農林水産省委託平成21年度地球的規模の問題に対する食料・農業・農村分野の貢献手法に関する検討調査援助実施方針-ブラジル連邦共和国」, [https://www.mri.co.jp/NEWS/press/2010/\\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https://www.mri.co.jp/NEWS/press/2010/_icsFiles/afieldfile/2010/04/06/nr100407_ssu03.pdf)

- 三井物産 (2018) 「中期経営計画の進捗及び2019年3月期事業計画」(2018年 5月 30日), ([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8/05/30/ja\\_183\\_4q\\_ppt\\_re.pdf](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8/05/30/ja_183_4q_ppt_re.pdf)) (2019년 5월 28일 참조)
- 三井物産 (2019) 「中期経営計画の進捗及び2020年3月期事業計画」(2019年 4月26日), ([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9/05/08/ja\\_193\\_4q\\_ppt.pdf](https://www.mitsui.com/jp/ja/ir/library/meeting/_icsFiles/afieldfile/2019/05/08/ja_193_4q_ppt.pdf)) (2019년 5월 28일 참조).
-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판 사이트(2014) 「第1回食料危機ははじまっている」(2014년 5월 12일, <https://natgeo.nikkeibp.co.jp/nng/article/20140501/395345/?P=1>) (2018년 8월 3일 참조)
- 日経ビジネス(2012) 「食糧非常事態宣言ー爆食と凶作の時代を生き抜くー」 『日経ビジネス』 2012년 8월 27일호 : 日経BP社.
- 日本 外務省, 「海外滞留邦人数 調査統計」
- 日本政策投資銀行 「金融用語集」, (<https://www.dbj.jp/glossary/ta.html>) (2018년 8월 3일 참조).
- 農林水産政策研究所(2019) 「世界の食料需給動向と中長期的な見通しー世界食料需給モデルによる2028年の世界食料需給の見通しー」, ([http://www.maff.go.jp/primaff/seika/attach/pdf/190304\\_2028\\_02.pdf](http://www.maff.go.jp/primaff/seika/attach/pdf/190304_2028_02.pdf)) (2019년 5월 28일 참조).
- 林瑞穂, ‘ブラジル大豆産業の構造変化 ー大豆集荷業を中心としたー考察ー’, (日本)農林水産政策研究 第31号(2019.1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レポート
- 美甘哲秀編著 (2009) 『日本の食料戦略と商社』 東洋経済新報社.
- ブレーンズ(2017) 『総合商社の専門情報誌 ブレーンズ』 No.2180 : ブレーンストラスト社 및 브レーン즈(2017b) 『総合商社の専門情報誌 ブレーンズ』 No.2181 : 브レーンストラスト社
- ポーター, 마이kel E(2001) 『競争戦略論 I』 다이아몬드社.
- 八木浩平 (2013) 「貿易自由化に伴う我が国植物油業界の構造転換-TTP参加による食品製造業への影響を中心に-」 『農業市場研究』 22(1).
- Azevedo de Britto, F.G., Sodr  da Silva, S. S., e Anache, B.M. (2016) T cnica, territ rio e impactos ambientais no “celeiro” das commodities agr colas, Bernardes, J.A.(eds.),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cio: transforma 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 Bernardes, J.A., Buhler,  . A. e Velozo da Costa, M.V. (2016)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cio: transforma 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Lamparia editora.
- Bernardes, J.A. e Silva, E.J.M. (2016) Estrat gias das empresas comerciais

exportadoras da cadeia de grãos na fronteira da BR-163 matogrossense, Bernardes, J.A.(eds.),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Bunge, A Bunge : Nossa História, [http://www.bunge.com.br/Bunge/Nossa\\_Historia.aspx](http://www.bunge.com.br/Bunge/Nossa_Historia.aspx)(2018년 6 월 20일 참조).

Dunning, J. H. (1988)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Unwin Hyman.

Financial Times (2017) Tough times for big grain traders, Financial Times, 08. 10. 2017. <https://www.ft.com/content/1266eefa-7c10-11e7-9108edda0bcbc928>(accessed on August 1, 2018).

Mueller, B. and Mueller, C. (201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razilian model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ions versus sectoral policy.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62

Mundo Educação, “O território brasileiro esua extensão, <https://mundoeducacao.bol.uol.com.br/geografia/o-territorio-brasileiro-sua-extensao.htm>(2018년 8 월 1 일 참조).

Navarro, K. (2018) Demanda no país por silosbolsa dobrou em 2017” , 31. 01. 2018, Valor Econômico. Presidência da República Casa Civil Subchefia para Assunto Jurídicos, LEI COMPLEMENTAR No. 87, DE 13 DE SETEMBRO DE 1996,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cp/Lcp87.htm](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cp/Lcp87.htm)(2018년 8 월 2 일 참조).

Nepstad, I. (2017) China’ s Soy Crushing Industry Impacts on the Global Sustainability Agenda-, Solidaridad.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sites/solidaridadnetwork.org/files/publications/China%20Soy%20report.pdf>(accessed on August 1, 2018).

Oliveira, G. L. T. and Schneider, M. (2015) The Politics of Flexing Soybeans: China, Brazil and Global Agroindustrial Restructuring,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3(1) : 2016.

Pires da Silva, R. T., Beheregarai, A., Vieira, L.M. and Teixeira, R. (2017)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Operations Strategies Decision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Soybean Chain. São Carlos, Gestão & Produção 24(4)

Ribeiro, D. (2018) Why Grain Trades Are Facing Bad Times, <https://conpar-agbrazil.blogspot.com/2018/03/why-grain-traders-are-facingbad-times.html>(accessed on August 3, 2018).

Turzi, M.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Booms-Managing Soybean Production in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Palgrave Macmillan.

Velozo da Costa, M.V. (2016) O processo de construção da nova fronteira do capital na BR163 mato-grossense, As novas fronteiras do agronegócio: transformações territoriais em Mato Grosso, Bernardes, J.A. eds.

Warnken, P. F. (1999)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Soybean Industry in Brazil, Iowa State University Press.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accessed on August 3, 2018).

Wesz Junior, V. J. (2011) Dinâmicas e estratégias das agroindústrias de soja no Brasil, Sociedade e Economia do Agronegócio.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Mapa-Bioma Cerrado, [https://www.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https://www.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2018년 2월 19일 참조).

일본농무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브라질 환경성 홈페이지(<http://www.mma.gov.br/biomas>)

Agrolink([https://www.agrolink.com.br/noticias/compracoletiva-de-insumos-reduz-custos-em-ate-15-destaca-aprosoja\\_205736.html](https://www.agrolink.com.br/noticias/compracoletiva-de-insumos-reduz-custos-em-ate-15-destaca-aprosoja_205736.html))

Valor Economico 홈페이지(<https://valor.globo.com/brasil/>)

Valor 1000 홈페이지(<https://www.valor.com.br/valor1000/2019>)

네이버 블로그 나는 김과장(nabi165, <https://blog.naver.com/nabi165/221660170781>)

네이버 블로그 yjhjr8(<https://blog.naver.com/yjhjr8/221804045983>)

네이버인(<https://kin.naver.com/qna/>)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https://terms.naver.com/>).